

동물복지 달걀, 소비자 인지도·구매 경험 늘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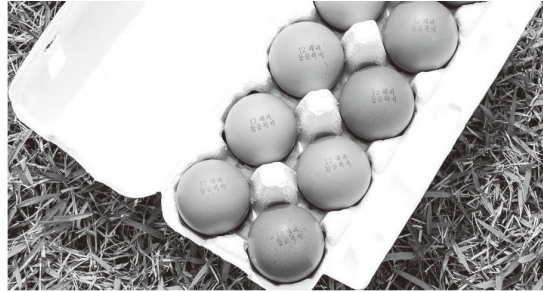
- 지난해 조사보다 인지도 20.6%p, 구매 경험 12%p 증가 -

출처 : 농촌진흥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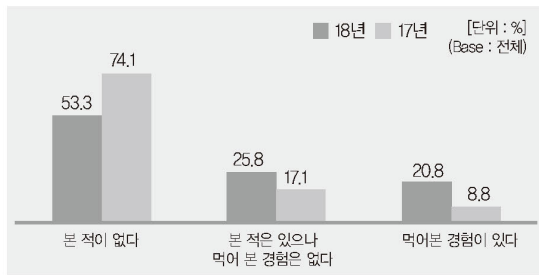
농촌진흥청(청장 리승용)은 동물복지와 달걀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높아진 관심을 정책에 반영하고자 소비자 1,530명을 대상으로 '동물복지 인증 달걀에 대한 인식도'를 조사했습니다.

그 결과, 국내산 달걀 품질에 대해서는 긍정적(38.7%)으로 평가하는 소비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

'동물복지 인증' 달걀의 인지도는 지난해 7월 조사 결과보다 20.6%p 오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1) 안전성과 사육 환경의 청결성에 대한 기대 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됩니다.



〈동물복지 인증 달걀〉



〈동물복지 인증 달걀 인지와 섭취 경험〉

또한, 응답자 중 20.8%는 동물복지 달걀을 먹어 본 적이 있다고 답했으며, 구입 경험이 있는 소비자도 지난해보다 12%p 늘었습니다.

소비자들은 △신선도(77.0%) △포장 상태(72.9%) △유통기한(71.3%) △껍데기의 청결도(66.7%) △맛(66.4%)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나, 가격에 대해서는 28%만 만족한다고 답했습니다.

동물복지에 알맞은 사육 방식으로는 85.8%가 방목 사육(방사 계사)을 꼽았습니다. 또, 사료와 물 섭취, 질병 예방과 치료, 달걀 가격 등을 고려했을 때, 유럽식 복지사육 시스템도 동물복지로 이해되고 관심이 있다는 응답이 26.9%로 높게 나타났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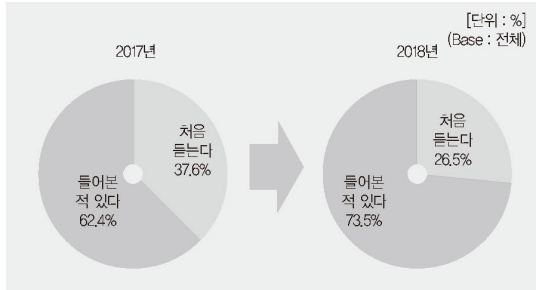
'동물복지' 용어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3.5%가 들어본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. 이는 지난해

1) 동물복지 인증 달걀을 본 적이 없다는 비율이 지난해보다 줄어, 인지 비율은 20.6%p 증가함.

2) 높은 수준의 동물복지 기준에 따라 인도적으로 동물을 사육하는 소·돼지·닭·오리농장 등에 대해 국가에서 인증하고 인증농장에서 생산되는 축산물에 '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마크'를 표시하는 제도.

3) 동물복지인증 산란계 농장 수는 2018년 10월 기준임.

(62.4%)보다 11.1%p 오른 것으로, 축산물 안전 문제에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.



<동물복지 용어 인지도>

동물복지 축산물 인증제도²⁾ 관련 질문에는 37.7%가 믿을 수 있다며, △동물 권리 중심 제도

(40.4%) △정부의 철저한 관리 감독(32.1%) △쉽게 알 수 있는 인증 조건(17.5%) 등을 신뢰하는 이유로 꼽았습니다.

이번 조사는 올해 6월 전국 만 25세~59세 여성과 만 25~35세 1인 가구 남성을 대상으로 컴퓨터 웹 조사로 진행했습니다. 표본오차는 95% 신뢰수준에서 ±2.5%입니다.

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가금연구소 천동원 소장은 “현재 동물복지 인증을 받은 산란계 농장은 116곳³⁾이며 계속 증가하고 있다. 동물복지 달걀 품질을 높이고 소비 활성화를 위해 이번 조사 결과를 활용할 계획이다.”라고 말했습니다.

참고자료

동물복지 인증 달걀에 대한 소비자 인식도

■ 개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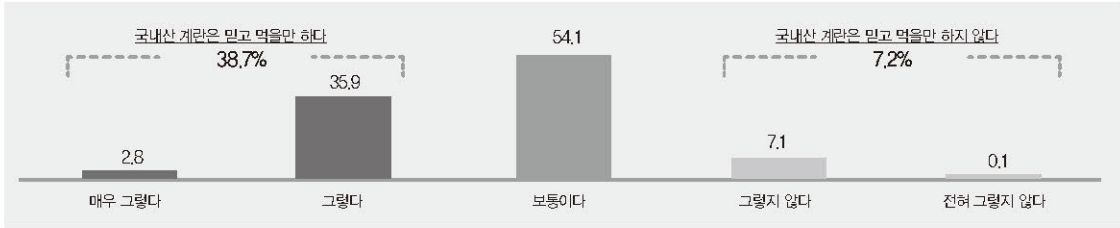
- 목적 :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달걀 신뢰도, 동물복지와 동물복지 인증 달걀에 대한 인식, 동물복지 인증 달걀의 구매와 평가를 통해 향후 동물복지 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지원을 위한 기초 자료 제공
- 조사 대상
 - 가정 내 달걀 구입 주 결정권자와 1개월 이내 달걀 취식자
 - 만 25~59세의 여성, 만 25~35세의 1인 가구 남성
- 조사 방법 : 컴퓨터를 이용한 웹조사(CAWI: Computer Assisted Web Interview)
- 조사 기간 : 2018.6.21.~7.6. ○ 조사 표본: 총 1,530명

권역	여성				남성	계
	20대 [25~29세]	30대 [30~39세]	40대 [40~49세]	50대 [50~59세]	25~35세	
수도권	94	203	231	218	52	798
충청권	16	39	46	45	13	159
전라권	14	31	42	42	7	136
경상권	36	87	109	119	24	375
강원과 제주	6	14	18	20	4	62
계	166	374	446	444	100	1,530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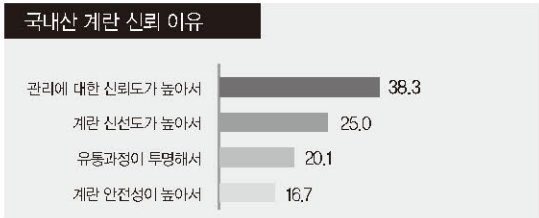
□ 내용

〈그림1〉 달걀의 신뢰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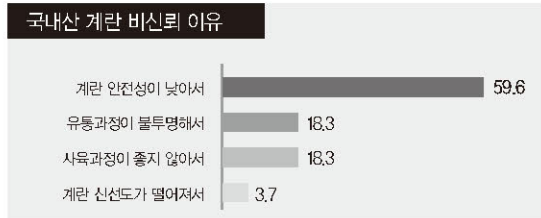
[단위 : %]
(Base : 전체)



〈그림2〉 국내산 달걀의 신뢰/비신뢰 이유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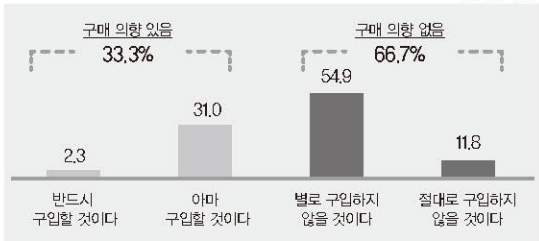
[단위 : %]
(Base : 국내산 계란이 믿고 먹음만 하다는 응답자)



[단위 : %]
(Base : 국내산 계란이 믿고 먹음만 하지 않다는 응답자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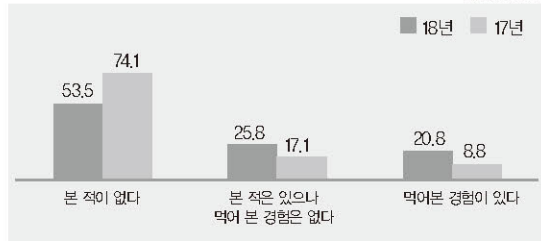
〈그림3〉 수입 달걀 구매 의향

[단위 : %]
(Base : 전체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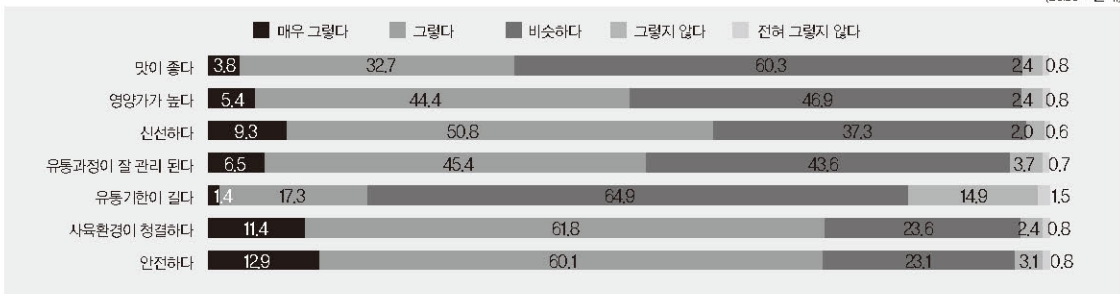
○ 〈그림4〉 동물복지 인증 달걀 인지와 섭취 경험

[단위 : %]
(Base : 전체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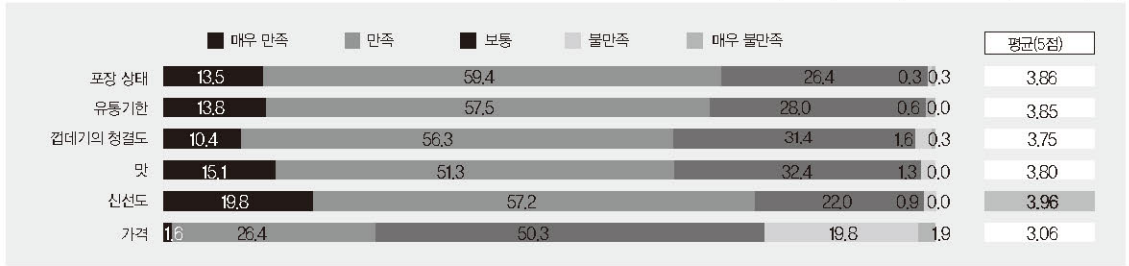
〈그림5〉 동물복지 인증 달걀에 대한 인식

[단위 : %]
(Base : 전체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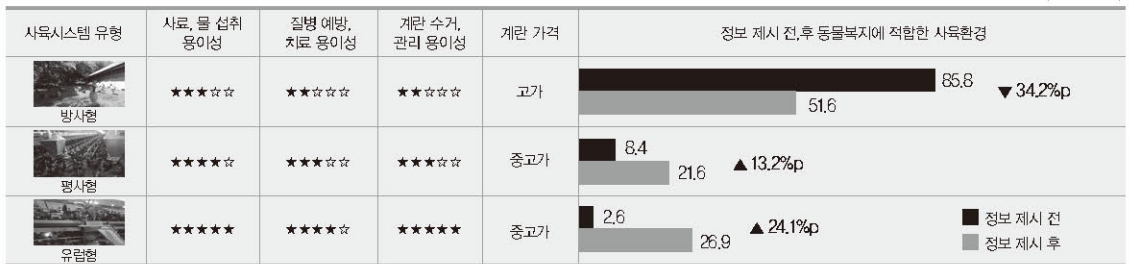
〈그림6〉 동물복지 인증 달걀 만족도

[단위: %]
(Base: 동물복지 인증 계란을 먹어본 경험이 있는 응답자)



〈그림7〉 정보 제시 전-후 동물복지에 적합한 사육환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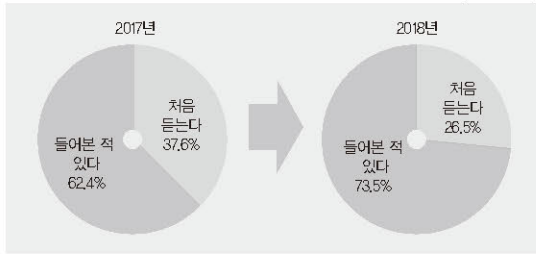
[단위: %]
(Base: 전체)



* 정보 제시 전 각 사육환경 비율은
방사형(85.8%)의 경우: Q9의 A 방사형 적합(77.4%) + A 방사형, B 평사형 적합(5.8%) + A 방사형, B 방사형, C 유럽형 적합(2.6%) 응답의 합계
평사형(8.4%)의 경우: Q9의 A 방사형, B 평사형 적합(5.8%) + A 방사형, B 평사형, C 유럽형 적합(2.6%) 응답의 합계
유럽형(2.6%)의 경우: Q9의 A 방사형, B 평사형, C 유럽형 적합(2.6%) 응답의 비율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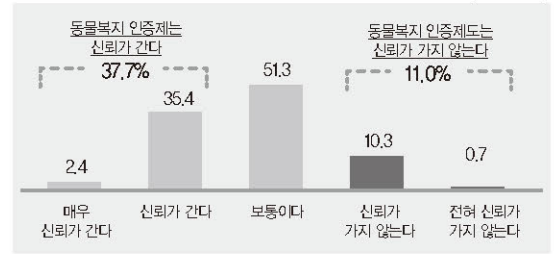
〈그림8〉 동물복지 용어 인지도

[단위: %]
(Base: 전체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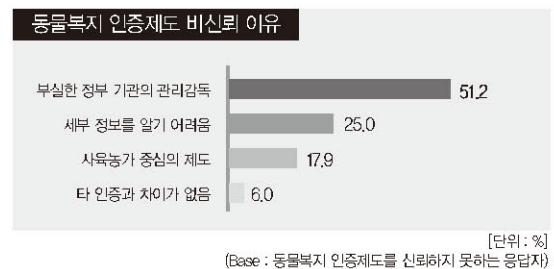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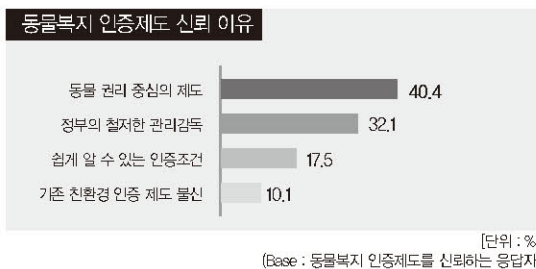


〈그림9〉 동물복지 인증제도 신뢰도

[단위: %]
(Base: 전체)



〈그림10〉 동물복지 인증제도 신뢰/비신뢰 이유



▣ 기대 효과

- 앞으로 동물복지 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지원을 위한 기초 자료 제공